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riage Costs and First Housing Costs of Urban Establishing Families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李 基 春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Chil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Kee Choon Rhee*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강사: 趙 恩 妍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Chil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Eun Jung Cho*

— 목 차 —

I. 서론	1. 예비조사
1. 문제제기	2. 본조사
2. 연구문제	3.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II.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IV. 결과 및 논의
1. 이론적인 배경	1. 결혼비용
2. 선행연구 고찰	2. 신혼주거자금
3. 연구범위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urban establishing families' marriage costs and first housing costs.

For this purpose 274 establishing families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standardized questionnaires. Finally 26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total marriage costs of urban establishing families were very high and the contents were very ritualistic. In higher education group, the total costs were high relatively. This was the case in first housing costs.

2) Their marriage costs were very dependent on their parent, the dependency were stronger in high education group compared to the low. This was the case in first housing costs.

3) The total marriage costs were higher than the first housing costs.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low education group compared to the high.

I. 서 론

1. 문제제기

결혼은 두 남녀 사이에 합의를 전제로 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법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혼식은 예전부터 관혼상제로 일생 중 한번 밖에 없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뜻있고 인상적인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개인의 일생에서 출생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란 그 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혼예식을 치루어 사회적인 공인을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기까지의 절차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을 반영하며, 개별가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두 남녀가 결합을 결정하고서 이루어지는 결혼절차는 보통 <약혼-합-결혼식-신혼여행-신혼주거에의 정착>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정서적 심리적인 준비 외에도 경제적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등한시 한 채 부부생활, 친인척관계 등의 정서적 준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대한가정학회b, 1990). 한편 가계경제부분의 연구들은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생활 즉 가정확립기-자녀양육기-자녀진수기-은퇴기 등의 가계생활주기에 따른 가계관리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결혼과 신혼주거정착까지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대한가정학회a, 1990).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식의 비용과다에 따르는 각종 사회문제가 등장하여 과다혼수, 지나치게 화려한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이 대중매체와 시민단체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주

택사정 악화로 인해 신혼주거마련이 용이하지 않으며, 신혼주거의 불안정은 그 가족의 주거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남들에게 번듯한 결혼의식을 치루는 것과 신혼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둘 다 매우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결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과연 한국사회에서 결혼의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학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단지 일부 여성잡지에서 다루고는 있으나, 그 성격상 흥미위주에 그칠 뿐 진정한 결혼교육의 자료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다혼수를 부추기는 양상까지 띤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물질적 풍요로 인한 소비사문제가 나타나는 한 단면으로 결혼과정을 연구문제로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결혼의 경제적 측면, 즉 결혼의식과 신혼주거마련에 드는 각종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비용지출문제를 지적하고 신혼주거문제 대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신혼주거마련의 경제적 비용실태를 연구주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 신혼기가계의 총결혼비용과 그 지출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신혼기가계의 총결혼비용과 그 지출구조는 부부의 사회경제적특성, 결혼과정, 결혼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조달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조달구조는 부부의 사회경제적특성, 결혼과정, 결혼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5> 도시 신혼기아가계의 신혼주거자금총액은 어느 정도이며, 부부의 사회경제적특성, 결혼과정, 결혼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6> 도시 신혼기아가계의 신혼주거자금의 조달구조는 어떠한가, 부부의 사회경제적특성, 결혼과정, 결혼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인 배경

인간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동반자를 얻기 위해, 가족과 자녀를 얻기 위해 그리고 성적 만족을 얻고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등등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유영주 등, 1990).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결혼의 의미만을 간단히 살펴 보겠다.

결혼에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식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이 따르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초기선물은 결혼 전체를 통하여 필수적으로 생기는 일련의 봉사과 선물의 시작이다. 따라서 이 선물은 두 사람보다는 양 가족을 묶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혼수는 결혼의 합법성을 확립하고 그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데 중요하다. 혼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혼은 부도덕한 것으로 멸시되며 나아가 혼수의 지급과 그에 수반되는 선물은 증여 집단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한다.

혼수는 그 수여범위와 교환방향에 따라 신부가족이 신랑에게 주는 것(dowry), 신랑가족이 신부에게 주는 것(dower), 신랑측에서 신부의 친척집단에 주는 것(bridewealth), 신부측에서 신랑친척집단에 주는 것(groomwealth)의 4가지 유형이 가능한데(Comaroff, 1980) 이것은 그 사회체계의 총체적 접근(total systems approach)으로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도 차이는 있으나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그 풍습이 남아 있다.

우리 나라의 의례는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복잡하게 허식화되어(박정순, 1977) 요즘 혼례의 예물 폐단은 젊은이들에게 사치성과 허영심을 길러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전통주의적인 가족제도와 그에 따른 사고방식을 오랫동안 간직하여 내려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의례양식은 큰 것이었다. 특히 결혼에 사용되는 제 비용은 마침내 우리 나라 농촌 가정경제를 파멸에 빠지게 하는 일대 요인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김경희, 1983).

이상과 같은 결혼비용은 가계경제적인 차원과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가계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는 대체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로 나눌 수 있는데(박미경 서미경, 1989) 특히 미혼 직장여성은 결혼전까지의 직장생활은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한 목적이며, 가계생활주기에서 자녀진수기가계는 자녀의 결혼비용마련이 주요발달과업이다(이기춘, 1991). 또한 결혼비용총액은 도시 근로자가계 월평균소득의 24~38배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이며(배순영, 1991), 결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부모의 고충, 자녀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는 부모, 혼수에 얽힌 문제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 등이 일간지 사회면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혼을 위한 각종 산업분야 즉 예식업, 신혼가구업, 가전업체의 신혼패키지, 여행업, 의류업, 요식업, 예물생산업 등의 식주 기타 서비스분야가 발달하고 있음에서 볼 때 한 가정의 출발에 얼마나 많은 경제부문이 관련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기에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여 가정의 기반을 확립해야 하는데(유영주 등, 1990) 개인적으로는 경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택가격은 거품처럼 팽창되어 있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제도가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윤정숙 등, 1992) 처음부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해동, 1978). 그러나 신혼기의 특성 상 직장과의 거리, 각종 사회문화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 미래의 희망찬 계획을 출발시킬 수 있는(배성일, 1983; 김대년 등, 1990) 주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기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부분 결혼당시부터의 경제적 계획이 결혼 후까지로 이어져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한 가계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기 까지 하다(월간 현대주택 편집실,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 전후 주로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으나 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히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어떠하며 어느 정도로 충족되어야 하는가는 학문적인 연구에서 제외되고 있음이 뚜렷하다.

2. 선행연구의 고찰

결혼비용에 관한 외국의 조사연구는 특히 가정학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인류학분야에서 결혼의식에 대한 참여관찰적 민속기술자가 눈에 띈 뿐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서구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양식으로 인해 결혼전에 이미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경우가 흔하며(이효재, 1989), 이 상태에서의 결혼은 자연스런 결합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화폐비용을 특별히 지출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의식절차도 의식과 형식보다는 두 부부의 결합을 사회적, 법적으로 공인받는 데에 중점을 두며,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개인간의 결합으로 치루어지므로 여러 친인척, 하객들의 선물 접대 등의 비용이 크지 않다. 셋째, 신혼주거도 2개월분 정도의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주거로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이며(Bailard, et al, 1986) 자가를 매입한다 해도 확실한 근로소득이 보장되기만 하면 주택매입가격의 70~90% 정도를 장기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의 발달 덕분에 결혼과 동시에 신혼주거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자체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다(McGuire, 1981).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결혼비용문제가 가계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가정학분야에서는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결혼의 심리적 정서적 준비와 적응문제를 주요 연구주제로 하는 경향이다.

문화인류학분야에서 혼인의식을 다룬 연구(Co-maroff, 1989; Bowman, 1970)도 문화적 전통적 풍습을 소개하고 인류문화의 옛 모습을 다양한 접근시각에 따라 재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주로 동서양 지참금의 의미에 대한 연구이므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 그 비용의 과다, 허례 허식에 치우친 지출 등을 지적한 연구는 없다.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결혼을 분석한 연구(박정순, 1977; 유영주, 1978; 김경희, 1983; 이혜숙, 1982; 최호원, 1983; 박명주 최향숙, 1988; 이정우 김명나, 1990; 고광림, 1990)는 주로 한국 전통혼례의식을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하거나 일부 혼수품목에 대한 조사 및 의식조사에 그쳤을 뿐이며 신혼주거마련 등 결혼비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진 못하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78; 1985; 1990)와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전국주부교실중앙회(1990)의 조사는 과다혼수의 절제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단순히 실태조사에 그쳤을 뿐이며 그 세밀한 구조나 원인규명에는 미흡하다(표 1 참조). 또한 각종 여성잡지에서도 결혼이 많은 봄 가을철에 특히 집중적으로 결혼비용을 기사화하고는 있으나 여러가지 혼수물품의 소개에 그치며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혼비용지출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상 몇가지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결혼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과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부측의 결혼비용지출이 신랑측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도 높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평등한 부부관계의 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딸 가진 부모'는 딸의 결혼때문에 경제적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아들'에 대한 선호의식이 강화되기 까지 한다. 셋째, 총결혼비용은 도시근로자가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40배 정도로 나타나 과다

표 1. 혼인비용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현황*

제 목	우리나라 혼례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우리나라 혼인의 의식과 비용분석	한국도시가족의 혼인비용 지출현황에 관한 연구	혼인비용지출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혼인비용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혼수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혼수비용 및 혼수용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혼비용실태 및 의식조사
조사년도	1976년 7~8월	1977년 11월	1983년 7~8월	1984년 9~11월	1987년 8월	1989년 12월	1990년 2월	1990년 10월
조사자	박정순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김경희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박명주 · 최항수	한국소비자 보호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조사대상	- 서울 ·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1년 미만의 남녀	- 도시거주 중산층(정확한 장소는 불분명) - 결혼 1년이내 신혼남녀, 미혼남녀, 부모 3계층을 각각 1,000명 대상	- 대구시내 거주자로 주거지역에 따라 결혼한지 2년 이내인 신혼 부부 선정	- 전국 12개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에 거주하는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남녀, 미혼남녀, 부모 각각 500명	- 부산시에 거주하는 결혼한 지 6개월 미만인 부부와 곧 결혼할 예비부부	-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결혼 1년미만의 신혼남녀	- 서울시내 거주 - 3년이내 결혼한 주부, 3년이내에 자녀를 결혼시킨 경험이 있는 주부 - 결혼지령기 자녀를 가진 주부	- 전국 5개 대도시 거주하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남녀 - 주로 중산층 대상
사례수	150부	2,492개	138쌍의 276부	1,465개	60개	580개	1,000개	1,200개
조사방법	설문지로 면접조사 自計式설문조사, 조사원조사 적용	自計式설문조사, 조사원조사 적용	설문지로 면접조사	自計式설문조사, 조사원조사 적용	면접법	조사원지점방문, 면접조사	직접방문, 면접	
비고					학부졸업논문으로 연구의 일반성이 떨어짐	부분적으로 시장 실태조사를 함	과소비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혼수마련방법 제시	

*조사년도 순으로 나열

혼수 호화결혼식을 입증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혼비용지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네째, 점차 신혼여행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랑측은 신부의 예물에 신부측은 살림마련에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신랑신부 모두 배우자예물 및 배우자가족예물, 결혼식 등의 의례적인 지출이 상당한 비중이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신혼주거마련이나 생활살림마련 등 실제로 두 부부의 결혼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지출비중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과시적인 결혼비용지출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실속을 우선으로 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신세대들이 신혼살림마련에 큰 비중을 두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결혼비용의 마련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그 의존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하객들의 축의금이 중요한 자금원천이다. 특히 축의금은 우리사회에서 각종 경조사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음과 맥을 같이하여 일종의 교환으로, 강제적 의미를 지닌다. 여섯째, 신혼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살림마련이 주로 신부측에서 부담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혼주거마련자금은 신랑측에서 조달되는 부분이 더 크며, 역시 부모에의 의존도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총결혼비용, 신혼주거마련비용의 부모부담률은 특히 대졸이상의 신부일 경우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세도 더 크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자녀의 결혼에 비합리적인 과시소비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이 추론된다.

3. 연구의 범위

1) 결혼비용

결혼비용이란 결혼에 드는 화폐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을 결정하고서 양가 및 배우자 예물 마련, 합들이, 신혼살림마련, 결혼식 및 신혼여행까지 지출되는 신랑/신부측의 모든 지출이다. 단, 약혼은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그 비용도 결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으며 약혼기간의 길이에 따라 약혼식부터 결혼생활시작까지를 동일한 맥락에서 포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혼이란 광의로 보면 결혼식 이후 가족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포괄하기도 하나 이는 엄격히 보면 결혼생활로서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 남녀가 한 가정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결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활비지출분석은 연구에서 제외된다.

2) 신혼주거자금

신혼주거자금이란 두 부부가 결혼하여 처음 생활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단위를 마련하는데 든 화폐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 후 일정기간 동거 후 분가한 경우는 분가한 주거마련비용을 신혼주거자금으로 하였으며,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료, 각종 부대비용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거공간의 매입이나 임차에 지출한 몫만을 지칭한다. 생활하면서 지불하는 월임대료나 관리비 등은 역시 생활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으며, 구체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이나 자가매입액을 신혼주거자금으로 하였다.

3) 신혼기가계

신혼기의 단계구분은 연구주제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구조와 주거실태가 연구주제이므로 자녀와 결혼지속년수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 결혼연령의 다양화에 따라 부부의 연령보다는 결혼지속년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욕구를 동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와 연령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직 자녀가 없거나 그 연령이 3세 이하로서 주거내부공간의 필요성과 교육시설의 중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결혼지속년수 4년 이내라는 기준으로 이어졌다. 결혼한 지 4년 이상이라도 가족계획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만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이나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전형적인 신혼기가계의 특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혼기가계는 유영주 등(1990)

의 분류에 따르면 신혼부부기-임신기-신생아기 자녀-영아기자녀 가족까지를 포함한다.

III. 연구방법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1991년 6월 6일~6월 28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도구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없거나 1명(3세 이하)인 핵가족으로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 방문하여 면접조사하였고 그 실질적인 응답대상은 주로 주부였다.

총 46가계가 조사되었으며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91년 9월 15일~10월 8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조사의 대상은 예비조사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결혼한 지 4년 이내 자녀가 없거나 1명(3세 이하) 핵가족 수도권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되, 서울의 강남/강북/수도권지역의 구와 동을 단계 집락표집한 후 조사요원들에게 선정된 동의 조사를 할당하였다. 조사요원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하였으며 할당된 동에서 주부취업, 가구주의 학력, 주거유형 및 소유형태가 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274부를 회수하여 조사대상요건에 부적합하거나 부실조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64부를 최종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특성-부부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월평균가계소득, 결혼지속년수, 현주거의 소유형태와 주거유형, 자가용 보유 여부 등

② 결혼-결혼까지의 과정, 신혼여행, 약혼과 결혼의 각종비용지출구조와 그 마련방법, 비용지출에의 영향요인, 절약의사

③ 신혼주거-신혼주거정착과정, 신혼주거자금 총액과 자금조달구조

수집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전산원의 SPSSX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분할표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3. 조사대상의 일반적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특성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표 2 참조), 남편의 직업에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비중이 76.6%였다. 결혼지속년수, 현재 자녀유무, 계획자녀수 등에서 미루어 볼 때 결혼한 지 4-5년이면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짐작된다. 41.3%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69.3%가 임차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최근 젊은세대의 편의추구적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100만원을 중심으로 집중분포하여 70만원~100만원 미만이 29.7%, 100만원~140만원 미만이 30.1%로 나타났다. 부부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체로 남편이 부인보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같다.

IV. 결과분석과 논의

1. 결혼비용

1) 결혼과정

조사대상의 57.0%가 순수 연애로, 23.2%가 연애반 중매반으로 배우자를 만났으며 1년~3년 정도(34.5%)가 보편적인 연애 기간이다(표 3 참조). 따라서 점차적으로 연애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신혼여행에서(표 4 참조) 장소는 75.0%가 제주도, 기간은 54.0%가 3박 4일, 30.4%가 2박 3일에 분포한다. 해외 유명관광지로 신혼여행한 부부도 4.5%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여행양상을 반영한다. 이후의 다른 항목보다는 표면적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전형적인 신혼여행은 제주도 3박 4일로 추론되나, 여행의 실질적 내용은 신혼부부의 여러가지 능력과 여건에 따라

표 2. 일반적 특성 빈도(%)

	구분	빈도(%)	
		남편	부인
연령	20~24세	-	13(4.9)
	25~29세	94(35.6)	202(76.9)
	30~34세	155(58.7)	45(17.1)
	35~39세	14(5.8)	3(1.1)
	40세이상	1(.4)	-
	계	264(100)	263(100)
	무응답		1
교육	고졸이하	55(20.8)	92(3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19.3)	48(18.5)
	대졸이상	158(59.8)	120(46.2)
	계	264(100)	260(100)
	무응답		4
직업	전문직	82(31.1)	36(13.8)
	관리직	19(7.2)	-
	사무직	101(38.3)	12(4.6)
	판매·서비스직	41(15.5)	17(6.5)
	생산직	17(6.4)	7(2.7)
	주부	-	179(68.6)
	기타	4(1.5)	10(3.8)
	계	264(100)	261(100)
	무응답		3
월평균 가계 총소득	-70만원 미만		23(8.9)
	70~100만원 미만		77(29.7)
	100~140만원 미만		78(30.1)
	140~180만원 미만		45(17.4)
	180만원 이상		36(13.9)
	계		259(100)
	무응답		5
결혼 지속 년수	1년이하		64(24.2)
	1년초과~2년이하		75(28.4)
	2년초과~3년이하		67(25.4)
	3년초과~4년이하		58(22.0)
	계		264(100)
자가용 보유여부	예		109(41.3)
	아니오		155(58.7)
	계		264(100)
현주거 소유형태	자가		81(30.7)
	임차		183(69.3)
	계		264(100)
현주거 유형	단독주택		46(17.3)
	아파트		125(47.7)
	다세대주택		27(10.3)
	다가구주택		64(24.2)
	계		262(100)
	무응답		2
거주 지역	강남		83(31.4)
	강북		82(31.1)
	수도권		99(37.5)
	계		264(100)

표 3. 결혼과정 빈도(%)

	만남	교제기간	
		연애	중매
연애	150(57.0)	1~2개월	22(8.3)
중매	52(19.8)	3~6개월	50(18.9)
연애반 중매반	61(23.2)	7~11개월	46(17.4)
		1~3년	91(34.5)
무응답	1	그이상	55(20.8)
계	263(100)	계	224(100)

표 4. 신혼여행 빈도(%)

	신혼여행지	신혼여행기간	
		제주도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	198(75.0)	1박2일	7(2.7)
제주도를 제외한	42(15.9)	2박3일	80(30.4)
국내유명 관광지		3박4일	142(54.0)
해외유명 관광지	12(4.5)	4박5일	26(9.9)
가지 않았다	8(3.1)	5박6일	4(1.5)
기타	4(1.5)	6박7일이상	4(1.5)
계	264(100)	계	263(100)
		무응답	1

표 5. 총결혼비용 단위: 만원, 빈도(%)

응답	비목별 합산	
	~500미만	500~1000미만
~500미만	114(46.5)	0
500~700미만	44(18.0)	~750미만
700~1000미만	34(13.9)	750~1000미만
1000~1300미만	44(18.0)	1000~2000미만
1300~1500미만	8(3.3)	2000~3000미만
1500~2000미만	14(5.7)	3000~5000미만
2000~3000미만	7(2.9)	5000이상
3000이상	9(3.7)	
계	245(100)	계
무응답	19	무응답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결혼비용의 지출구조

총결혼비용이 5백만원 미만이었다는 응답은 46.5%인 반면 각 비목별 합산 결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액수가 나타났다(표 5 참조). 계산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52.6%, 평균값이 1천 8백만원이나, 그 편차는 매우 크다. 그 이유는 결혼시기차이에서 오는 물가상승요인, 최근 1~2년 호화혼수 결혼풍습이 더욱 만연된 것 등으로 생

표 6. 총결혼식 비용중 남·녀비중 빈도(%)

	신랑측	신부측
~20%미만	15(6.1)	2(.8)
20~35%미만	91(37.0)	14(5.7)
35~50%미만	90(36.6)	33(13.4)
50~70%미만	44(17.9)	127(51.6)
70%이상	6(2.4)	70(28.5)
계	246(100)	246(100)
무응답	18	18

각된다.

결혼비용의 남·녀비중을 계산해 보면(표 6 참조) 평균적으로 여자측이 총결혼비용 중 61.5%를, 남자측이 38.5%를 담당하였다. 특히 여자측의 80.1%가 결혼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비용의 여자측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결혼적령기의 딸을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다¹⁾.

총결혼비용은 현재의 소득보다 부부학력에 따른 차이가 현격하나 결혼과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총결혼비용이 유의하게 크다(표 7 참조). 즉, 최근에 결혼한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결혼비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호화결혼 과다혼수 등은 최근에 중산층 이상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 사회문제로 추론된다. 교제방법에 따라서 결혼비용에 차이가 없는 것은 결혼시기와 학력요인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숨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자측의 비용부담률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부측에서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 혹은 신부측의 결혼비용이 신랑측보다 훨씬 큰 것은 사회경제적 특성, 결혼과정 및 시기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총결혼비용의 지출구조를 남·녀로 나누어 살펴 보면(표 8 참조) 남자측은 주로 배우자예물과 그

1) 본 연구에서 약혼비용분석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약혼식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거의 대부분 여자측에서 부담하고 있어 신부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표 7. 배경변수에 따른 결혼비율의 일원분산분석결과

변수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교제방법			교제기간				결혼지속연수			
	100만원 미만 (100)	100~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48)	대졸이상 (117)	연애 (150)	중매 (52)	연애만 (61)	6개월 이하 (72)	7~12개월 이상 (137)	13개월 이상 (55)	1년이하 (64)	1년초과 2년이하 (72)	2년초과 3년이하 (69)	3년초과 4년이하 (55)	
평균	1615.23	1747.85	2242.73	1249.04	1507.80	2111.07	1437.34	1729.09	2167.61	1793.43	1861.04	1784.13	1632.07	1888.62	1847.24	2232.27	1883.31	1592.31	1504.53	
F값	4.36*			11.35***			8.55***			.06			.94			3.93**				
S-r*	a	a	b	a	a	b	a	a	b	a	a	a	a	a	a	a	a	b	b	
평균	60.80	61.17	61.92	59.19	61.66	61.85	61.28	57.55	62.84	60.44	61.14	62.69	60.03	62.35	63.03	61.45	60.79	59.68		
F값	.09			.59			2.02			.76			.85			.46				

*p<.05 **p<.01 ***p<.001 # : Scheffe-test p<.05

가족예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자측은 살림마련과 배우자예물 및 가족예물이 중요한 비목이다. 특히 살림마련비용은 여자측에서 5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가 40.7%나 되는 반면 남자측은 4.8%에 그치고 있다. 또한 큰 비중은 아니나 합들이에 지출되는 비용도 여자측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관련되는 비용은 여자측의 지출부담이 대체로 크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비용의 조달

이상과 같은 결혼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는데 먼저 우리 사회의 특이한 풍습인 축의금상황을 점검해 보면(표 9 참조) 양가의 총축의금은 평균 868만 3천원이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에 42.7%가 분포한다. 1천만원 이상도 29.2%에 이르고 있어 총결혼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액수의 축의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물론 물가상승의 영향도 있긴 하겠으나 최근 결혼풍속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축의금액수는 신혼가계의 현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부부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표 10 참조). 또한 축의금 총액은 결혼시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하객의 축의금은 최근 1~2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가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다. 이는 축의금이 신랑, 신부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모세대의 인맥과 집안배경에 따라 주로 정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총결혼비용을 마련하는 데 각 방법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응답받은 결과 남녀 모두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남녀 모두 결혼비용을 부모가 전담한 경우가 37.5%와 37.7%였으며 부모로부터 전혀 도움받지 않은 경우는 각각 22.9%와 18.3%에 지나지 않았다. 미세하긴 하나 여자측의 부모의존정도가 더 높아 보인다. 반면 본인의 저축 등으로는 결혼비용을 전혀 조달하지 못한 경우도 남자측 37.9%, 여자측 36.5%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결혼비용을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성향 외에도 결혼전 소득 지출관리를 부모에게 일임하는 양상 때문일 것으로

표 9. 총 축의금 단위 : 만원, 빈 도(%)

총 축의금	빈 도(%)
0	5(2.0)
-500미만	69(28.0)
500이상-	105(42.7)
1000이상-	50(20.3)
2000이상-	22(8.9)
계	246(100)
무응답	18

표 8. 총결혼비용중 각 비목별 비중

남 자	비중					빈 도(%)
	결혼식	배우자예물	가족예물	살 림	신혼여행	합
0	13(5.3)	8(3.3)	56(22.5)	194(77.9)	19(7.7)	222(88.4)
10%미만	54(22.0)	27(11.0)	72(28.9)	10(4.0)	96(39.0)	29(11.6)
10~30%미만	115(46.7)	66(26.8)	101(40.5)	23(9.2)	131(53.3)	
50~50%미만		145(58.9)	20(8.0)	10(4.0)		
50%이상				12(4.8)		
계	246(100)	246(100)	249(100)	249(100)	246(100)	251(100)
무응답	18	18	15	15	18	18
여 자	비중					빈 도(%)
결혼식	배우자예물	가족예물	살 림	신혼여행	합	
0	11(4.3)	8(3.3)	17(6.7)	5(2.0)	105(41.3)	75(29.6)
10%미만	118(46.7)	66(26.1)	59(23.3)	3(1.2)	138(54.3)	178(70.4)
10~30%미만	124(49.0)	159(62.9)	163(64.5)	48(18.9)	11(4.3)	
30~50%미만		21(8.3)	14(5.5)	94(37.2)		
50%이상				103(40.7)		
계	253(100)	254(100)	253(100)	253(100)	254(100)	253(100)
무응답	11	10	11	11	10	11

표 10. 배경변수에 따른 총축의금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결혼지속년수						
		100만원 미만 (100)	100~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1년이하 (64)	1년초과 2년이하 (72)	2년초과 3년이하 (69)	3년초과 4년이하 (55)
총축의금 (만원)	평균	769.47	942.09	873.96	577.74	608.33	1066.53	627.21	689.17	1150.29	1200.85	913.54	677.35	678.20
	F값	1.57		15.90***		18.06***		8.51***						
	S-r#	a		a	a	a	a	a	a	a	a	a	b	b

***p<.001 # : Scheffe-test p<.05

생각된다. 또한 예상했던 바대로 축의금은 결혼비용에 큰 부분을 담당하였다. 결혼비용때문에 용자를 받는 경우도 남자측의 경우 12.4%에 이르고 있어 결혼비용이 신혼기 가계경제에 큰 부담임을 알 수 있다.

결혼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남편과 부인 모두 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부모의존정도가 더 높다(표 12 참조). 한편 부부학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본인의 부담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의 현재 경제능력보다는 그들 부모의 경제력이 결혼비용의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앞에서 총축의금은 부부의 학력과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축의금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계층과 결혼시기와는 상관없이 축의금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도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²⁾은 우선 주부 본인 및 친정의 경제능력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었다(표 13 참조). 그러나 남편이나 시댁의 의향, 사회적 관습이나 주위의 이목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44.0%와 51.4%로 나타나 경제능력이나 본인의 소신과는 달리 결혼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각 영향요인은 교제방법이나 기간, 현재의 가계소득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부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본인, 친정의 경제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본인육심정도, 주위이목이나 시댁의향 등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³⁾. 따라서 결혼비용이 얼마나 지출되는가의 결정적 요인은 그 부모세대의 경제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부가 대졸이상인 집단의 부모들은 경제적 자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2) 이 문항은 주부대상으로 국한되었으므로 차이점 중에서도 주부의 학력만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3) 각 변수별 상세한 분할표분석 중 유의하지 않은 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표 11. 결혼비용조달방법의 비중

		축의금	부모님	본인	용자	형제자매친척
남	0	117(44.3)	58(22.9)	96(37.9)	222(87.7)	192(75.9)
	-20%이하	64(25.3)	37(14.6)	49(19.4)	17(6.8)	48(19.0)
	21~50%이하	48(19.0)	63(24.9)	61(24.1)	11(4.4)	11(4.3)
자	51~100%	24(9.5)	95(37.5)	47(18.5)	3(1.2)	2(.8)
	계	253(100)	253(100)	253(100)	253(100)	253(100)
무응답		11	11	11	11	11
여	0	142(54.0)	48(18.3)	96(36.5)	253(96.2)	178(67.7)
	-20%이하	65(24.7)	55(20.9)	37(14.1)	10(3.8)	70(26.6)
	21~50%이하	38(14.4)	61(23.2)	55(20.9)		9(3.4)
자	50~100%	18(6.8)	99(37.7)	76(4.5)		6(2.3)
	계	263(100)	263(100)	263(100)	263(100)	263(100)
무응답		1	1	1	1	1

표 12. 배경변수에 따른 결혼비용비중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남편학력			부인학력			결혼지속년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중퇴	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중퇴	대졸이상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결혼비용중 부모비중 :남자측(%)	평균 28.59	42.60	50.22				45.12	45.52	44.56	40.64
F값	7.66***						.23			
S-t#	a	a b	b							
결혼비용중 부모비중 :여자측(%)	평균			31.68	33.66	59.81	49.70	39.73	45.65	43.13
F값				20.93***			.90			
S-t#				a	a	b				
결혼비용중 본인비중 :남자측(%)	평균 40.38	34.30	20.74				23.64	26.91	29.85	30.09
F값	9.73***						.56			
S-t#	a	a	b							
결혼비용중 본인비중 :여자측(%)	평균			45.77	43.65	20.04	26.23	38.03	35.22	35.27
F값				19.73***			1.48			
S-t#				a	a	b				
결혼비용중 축의금비중 :남자측(%)	평균 19.15	11.40	20.58				21.32	16.27	18.97	17.29
F값	2.29						.43			
결혼비용중 축의금비중 :여자측(%)	평균			11.89	14.48	18.43	16.95	10.99	10.44	15.96
F값				.26			1.63			

***p<.001 # : Scheffe-test p<.05

표 13. 결혼준비시 영향요인

영향요인	빈도(%)			
	영향받지않음	보통	영향받음	무응답
본인 및 친정의 경제능력	51(19.5)	96(36.8)	114(43.7)	3
본인의 욕심	104(40.6)	119(46.5)	33(12.9)	8
남편이나 시댁의 의향	114(44.0)	99(38.2)	46(17.8)	5
사회적관습이나 주위의 이목	131(51.4)	95(37.3)	29(11.4)	9

표 14. 주부학력과 결혼비용영향요인의 분할표분석
빈도(%)

변수	집단	부인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중퇴	대졸이상
결혼영향 요인 中 본인·친정 경제능력	영향받음	29 (32.2)	15 (31.9)	66 (56.9)
	보통	38 (42.2)	18 (38.3)	38 (32.8)
	영향받지 않음	23 (25.6)	14 (29.8)	12 (10.3)
	계	90 (100.0)	47 (100.0)	116 (100.0)
	χ^2	19.40***		

***p<.001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상 결혼비용과 그 조달방법을 분석한 결과에서 과다한 결혼비용은 중산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경제력이 부모세대로부터 신혼부부에게로 이동됨을 시사한다.

표 15. 결혼비용절약 의사

	빈도(%)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바람직함	계
결혼비용절약하여 주거마련에 보탬	5(1.9)	32(12.1)	227(86.0)	264(100)

표 16. 결혼비용절약

절약가능여부	빈도(%)	가능액수		총결혼비용중 비율	
		가	능	비	율
실제로 절약	20(8.9)	-500만원 이하	187(87.0)	-20%미만	115(56.4)
절약 가능	178(79.5)	600-1000만원이하	23(10.7)	20-50%	70(34.3)
절약불가능	26(11.6)	그 이상	5(2.3)	그 이상	19(9.3)
계	224(100)	계	215(100)	계	204(100)
무응답	40	무응답	49	무응답	60

4) 결혼비용절약의사

그렇다면 과연 신혼주부들은 과도한 결혼비용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결혼비용을 절약하여 신혼주거마련에 보탬에 대해 86.0%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5 참조). 반면 실제로 결혼할 때 그렇게 한 경우는 8.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79.5%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가능액수는 87.0%가 5백만원 이하로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결혼비용총액과 비교해 보면, 신혼주부의 56.4%가 총결혼비용의 20% 미만 정도를 절약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상인 경우도 43.6%로 나타나 총 결혼비용 중 상당부분을 절약하여 신혼주거마련에 보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신세대들의 실리적인 가치관 및 신혼생활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결혼비용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2. 신혼주거자금

1) 신혼주거자금의 조달

신혼주거를 마련한 혹은 신혼주거 특성을 결정한

표 17. 신혼주거 자금총액 단위 : 만원, 빈도(%)

- 1000이하	78(30.2)
1001~3000이하	130(50.4)
3001~7000이하	37(14.3)
7001이상	13(5.0)
계	258(100)
무응답	6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거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조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자금원천별로 분석해 보면(표 17 참조) 신혼주거 자금총액은 2천만원~3천만원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다(50.4%).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7.5%인데, 물론 결혼시기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집값상승을 감안한다 해도 이들은 자가소유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혼주거자금총액은 현재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부부학력과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18 참조). 즉 부부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 최근 1 2년에 결혼한 집단의 신혼주거자금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신혼주거의 자금은 현재 신혼지가계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며 최근 89년 말부터 91년까지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의 폭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막대한 신혼주거자금의 조달방법별로 그 절대액을 살펴보면(표 19 참조), 직장용자는 10% 정도가 이용했으나 그 액수는 1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용자도 20% 정도가 이용했으나 대체로 1천만원 이하이다. 본인들의 저축 이용은 40.2%에서 나타났는데 그 액수도 대개 1천만원 이하이다. 이에 비해 75%정도가 시댁·친정의 보조를 이용하였으며 그 액수분포도 1천만원 이상이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자금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순수한 총액평균을 보면 직장용자 824만원, 저축 795만원, 은행용자 951만원인 반면 시댁·친정보조는 무려 2,185만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커서 부모는 단지 얼마라도 자녀가 결혼할 때 주거마련에 몫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경제수준과

표 18. 배경변수에 따른 총주거자금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결혼지속년수			
		100만원 미만 (100)	100~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1년이하 (64)	2년이하 (72)	3년이하 (69)	4년이하 (55)
신혼주거 총자금 (만원)	평균	2147.68	2213.11	3187.27	1304.82	1753.40	3021.04	1428.90	1916.09	3350.00	3707.81	2518.08	1570.87	1831.48
	F값	2.84			9.79***			14.20***			7.98***			
	S-r#				a	a	b	a	a	b	a	a	b	b

***p<.01 **p<.05 # : Scheffe-test p<.05

표 19. 신혼주거 자금조달구조

단위：만원, 빈 도(%)

	은행용자	직장용자	저 축	시댁친정보조	사 채	결혼비용절약	기 타
0	206(79.5)	234(90.3)	152(58.9)	58(22.4)	251(96.9)	236(91.1)	244(94.2)
500이하	24(9.3)	12(4.6)	53(20.5)	37(14.3)	8(3.1)	18(6.9)	11(4.2)
501~1000이하	20(7.7)	13(5.0)	37(14.3)	47(18.1)		5(1.9)	4(1.5)
1001이상	94(3.5)		16(6.2)	118(45.2)			
계	259(100)	259(100)	258(100)	259(100)	259(100)	259(100)	259(100)
무응답	5	5	6	5	5	5	5

표 20. 신혼주거 자금원천별 기여도

빈 도(%)

신혼주거	은행용자	직장용자	저 축	부모보조	사 채	결혼비용절약
0	206(79.5)	234(90.3)	152(58.9)	58(22.4)	251(96.9)	236(91.1)
~20%미만	14(5.4)	12(4.6)	23(8.9)	10(3.9)	4(1.5)	11(4.2)
20~40%미만	20(7.7)	6(2.3)	16(6.2)	21(8.1)	2(.8)	9(3.5)
40~60%미만	10(3.9)	7(2.7)	18(5.8)	25(9.7)	2(.8)	1(.4)
60~80%미만	5(1.9)	-	15(5.8)	16(6.2)	-	-
80~100%미만	-	-	1(0.4)	16(6.2)	-	-
100%	4(1.5)	-	33(12.8)	107(41.3)	-	2(.8)
계	259(100)	259(100)	258(100)	259(100)	259(100)	259(100)
무응답	5	5	6	5	5	5

상관없이 매우 보편적인 관습임과 동시에, 결혼비용과 함께 부모세대의 경제력이 그 자녀세대로 이동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목임을 알 수 있다.

그외에 결혼비용을 절약하여 주거마련에 보탬 비율은 9.2%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로 절약한 경우에도 그 액수가 평균 385만원에 그치고 있어, 결혼의 형식과 절차에 과다한 경제력이 소모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신혼주거 마련에 대한 각 자금원천의 기여도는 물가상승 및 신혼주거자금 총액규모에는 상관없이 신혼주거마련의 자금조달양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절대액수 분석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저축으로 신혼주거자금의 60% 이상을 조달한 비율이 19.0%나 되는 것은, 비교적 자금규모가 작은 신혼주거를 얻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 20 참조). 자금원천의 절대액 분석에서 예상되는 바이지만, 신혼주거자금을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전체의 41.3%나 되며, 부모로부터 신혼주거자금을 보조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53.2%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신혼주거자금을 의존하였다

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결국 시댁이나 친정에서 신혼주거를 마련해 준다는 주변관습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이러한 부모의 신혼주거자금조달정도는 현재가 계소득과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표 21 참조) 부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신혼주거자금의 부모의존도가 더 높다. 즉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자립적인 신혼주거마련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그 집단의 자립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모들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일찍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였으므로 스스로 결혼의 경제적 준비를 어느 정도 해 왔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25세~35세 무렵 충분히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연령에 결혼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의존정도는 더 강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의 비교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표 21. 배경변수에 따른 신혼주거자금 중 부모비용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결혼지속연수			
		100만원 미만 (100)	100~160만원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1년이하 (64)	1년초과 2년이하 (72)	2년초과 3년이하 (69)	3년초과 4년이하 (55)
신혼주거자금 중 부모 보조비율(%)	평균	68.23	59.67	54.46	50.35	52.33	71.23	42.07	51.16	69.23	68.14	60.22	56.39	55.05
F값		.80			8.10***			10.90***			1.27			
S-r#					a	a	b	a	a	b				

***p<.001 # : Scheffe-test p<.05

표 22.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 비율의 빈도분포*
빈도(%)

-50.0%이하	42(17.4)
50.1-100.0%이하	85(35.3)
100.1-200.0%이하	74(30.7)
200.1-300.0%이하	24(10.0)
300.0%이상	16(6.6)
계	241(100.0)
무응답	19

* :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 비율

$$= \frac{\text{총결혼비용}}{\text{신혼주거자금총액}} \times 100$$

신혼주거마련비용은 그 비율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표 22 참조). 놀랍게도 결혼비용이 신혼생활의 보급자리마련비용보다 월등히 높아 1배~2배인 경우는 30.7%, 2배 이상인 경우도 16.6%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신혼주거가 오히려 1회적인 결혼보다 소홀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결혼의 과시적 소비양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율을 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23 참조). 특히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결혼비용의 지출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결국 제한된 경제자원 내에서 두 부부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오히려 결혼이라는 의식에 비해 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제한이 심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결혼비용에서 살림마련 등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목이긴 하나 신혼여행, 결혼식, 예단과 예물 등은 일과성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비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이러한 일과성 지출비중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 결국 중산층 이상에서는 결혼 및 신혼주거마련비용의 절대액수가 크다는 점과 그러한 자금의 부모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인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실질적인 항목보다는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항목의 지출이 더욱 우선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표 23. 배경변수에 따른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 비율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결혼지속년수					
	집단	100만원 미만 (100)	-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중퇴	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중퇴	대졸이상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72)	2년초과 3년이하 (69)
평균	229.29	116.16	138.08	297.64	186.50	104.28	248.03	142.98	102.49	98.81	136.94	212.22	205.27
총결혼 비용비중 (%)	2.10			5.41**		3.81*		1.39					
F값													
S-r#				a		a		a		a		b	

*p<.05 **p<.01 # : Scheffe-test p<.05

개다가 최근 1~2년에 결혼한 집단이 신혼주거 마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이것이 허례허식과 과시적인 결혼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긴 어려우며 오히려 최근 1~2년 사이의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폭등 때문에 신혼주거마련에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비용의 지출은 그 총액이 매우 커서 첫 출발하는 신혼가계와 그들을 진수시키는 부모세대 모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그 내용에서 일과적이고 형식적인 지출양상을 보인다. 결혼비용은 남자보다 여자측의 부담률이 더 높으며,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비용이 더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혼주부는 이러한 과대지출을 후회하고 있었다.

둘째, 결혼비용의 조달은 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다. 하객들의 축의금은 결혼비용조달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그 총액과 기여도 역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신혼주거자금의 총액 역시 매우 커서 결혼비용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결혼'이 개별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추론된다. 신혼주거자금의 조달은 거의 부모가 하고 있으며, 부모의 부담정도와 자금총액은 결혼하는 남녀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최근의 집값 및 전세보증금 폭등으로 인해 결혼비용이 신혼주거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지긴 하였으나 아직도 결혼비용이 신혼주거자금보다 더 많다. 또한 그 정도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더 심하여 형식과 의례에 지우친 지출양상이 더 두드러진다.

다섯째, 대부분의 신혼기 주부들은 의례적인 결혼비용지출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결혼비용을 절약하여 신혼주거마련에 보태는 것이 훨씬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비용지출에서 과소비적인 양상을 줄이도록 하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과시적인 소비는 거의 대부분 과소비로 이어지며 사회의 풍요와 함께 중산층 이상에서 출발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결국 자원이 부족한 계층에게 형식적이며 타인에게 과시하는 비목의 지출이 오히려 실리적인 지출보다 우선시되는 양상을 낳아 심각한 경제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위와 같은 노력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대중매체, 각종 시민단체에서 합리적인 결혼비용지출에 대한 교육과 계몽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신세대의 합리적인 가치관 확립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부모세대에게까지 활발한 의식변화운동이 필요하다. 즉 결혼에서 후기산업사회 소비자가치를 확산시켜 물질적 소유보다는 사용자체에 관심을 가지며, 편리함을 추구하나 그 비용도 고려하며, 허례허식보다는 필요한 만큼을 소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결혼비용의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양상이 중산층 이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때 사회지도층의 자발적인 규제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자녀수의 감소, 물질의 풍요, 핵가족화, 가족주의가치 등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과잉보호와 자녀의 독립성결여가 결혼비용 및 신혼주거자금의 부모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음에서 미루어 볼 때 미혼남녀 및 결혼전령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부모의존경향이 부를 세습시키고 계층간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사회는 더욱 폐쇄화, 불균등화, 갈등화 양상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때 정책적인 배려는 과거의 가정의례준칙과 같이 강압적 규제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그러한 규제는 현대 자유주의 풍조에서 반드시 반발과 위법적인 행동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는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계층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 및 사회복지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이나 비용부담이 적고 신혼생활에 적합한 임대주거를 우선 공급하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자발적인 운동을 촉발시키는 노력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90). 한국의 사회지표.
- 2) 고광립(1990). 한국의 혼인에 대한 연구. 서울: 화성사.
- 3) 공세권 등(1988).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4) 김경희(1983). 한국 도시 가족의 혼인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대년·홍형욱(1990). 주거생활주기 모형 설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주거학회지창간호, 37-48.
- 6) 김정자(1981). 한국결혼풍속사. 서울: 민속원.
- 7) 김해동(1978) 한국인의 주거주기. 행정논총 16(1), 74-91.
- 8) 대한가정학회a ed.(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가정관리학 소비자학 주거학. 서울: 교문사.
- 9) _____ b ed.(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 가족학. 서울: 교문사.
- 10) 박명주·최향숙(1988). 혼수비용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부산여대 가정관리연구 9, 76-78.
- 11) 박미경·서미경(1989). 졸업반 남녀 대학생의 결혼준비도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가정관리연구 10, 65-73.
- 12) 박정순(1977). 우리 나라 혼례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4), 77-89.
- 13) 배성일(1983).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배순영(1991). 결혼비용에 관한 연구. 한샘주거환경연구소 미간행보고서.
- 15) 생명보험협회(1988). 가계관리와 자산대책.

- 16) 월간 현대주택 편집실(1989). 나는 이렇게 집을 마련했다. 서울 : 주택문화사.
- 17)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현대인의 결혼관조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인문과학논문집* 2, 127-250.
- 18) 유영주·이순형·홍숙자(1990). 가족발달학. 서울 : 교문사.
- 19) 유팔무(1981). 세대간의 사회이동과 교육기회 불평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윤정숙·이경희·홍형욱(1992). 주거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21)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서울 : 교문사.
- 22) 이길표·이영미·이은숙·황경애(1988). 가정자원관리. 서울 : 성신여대 출판부.
- 23)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24) 이정우·김명자(1990).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 숙명여대 출판부.
- 25) 이행숙(1982). 우리 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례지출에 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이효재(1989).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 27)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78). 우리 나라 혼인의 의식과 비용 분석.
- 28) _____(1985). 혼인비용지출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 29) _____(1990). 혼수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 30) 전국주부교실중앙회(1990). 혼수비용, 예단지출 이 가장 많다. *월간 소비자* 117, 35-41.
- 31) 제미경·백경미(1991). 과소비문제에 관한 고찰. *인제논총* 7(1), 333-346.
- 32)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89).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33) 최신태(1978). 결혼과 가족.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34) 최호원(1983). 혼인의식에 나타난 배우자 선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한국일보사회부(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 한국일보사출판국.
- 36) 한국주택은행. 주택금융 각월호.
- 37) 한남제(1990).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38) Bailard, Thomas E., David L. Biel. & Ronald W., Kaiser.(1986). *Personal money management*. Chicago :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 39) Bowman, Henry A.(1970). *Marriage for moderns*. McGraw Hill Co.
- 40) Comaroff, J. L. ed.(1980). *The Meaning of marriage payments*. New York : Academic Press.
- 41) Gullotta, Thomas P., Gerald R. Adams., Sharon J. Alexander.(1986). *Today's marriages and families*. Monterey,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
- 42) Kirkendall, Lester A. & Arthur E. Gravatt ed. (1984). *Marriage and the family in the year 2020*. Buffalo, New York : Prometheus Books.
- 43) McGuire, Chester C.(1981). *Internatinal housing policies-a comparative analysis*. Lexington,Massachusetts : Lexington Books.